

특집 9·28 서울收復과 赤治 1백 일 그 現場

赤治 1백 일, 그들의 檢行 그 現場

—이것이 赤治下의 서울이었다—



赤治발판 서울로 굳히고

—李承鎭을 위원장으로任命—

김일성의 주도로 밀한 시선에 따라 不法 南侵을 강행했듯이 1950년 6월 28일 서울 정령 후 3個月동안의 占領地位 이었고, 전기인 사방작전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방에 따라 南韓本化 를 위한 北韓集團의 계획은 하나 하나實現되어 절다.

이 용용한 不法무리들의 南韓정령지에서 나온 그들의 사전 작본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① 남한침략을 강행하여 人民戰略를 조직, 兵力損失을 중단한다.

② 남한주민들의 力力を 풍선했다.
③ 양국정수를 경찰기관봉사를 현지에서 조달한다.

④ 首都의 서울이전을 전제로 전통과 주택을 정상한다.

⑤ 土地改革을 실시한다.
⑥ 공인고위 이직조치인人士를 포함하여 중간 차이지도 배우자에게 배치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南韓정령지 시책에 대한 사방작전은 北韓集團의 韓半島 共產化라는 목표에 전시화해 서맞추어 진 것이다.

이제 이 계획을 南韓정령지에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을 소위 「共和國 首都」로 정하고 그들의 서울시 책임자를 임명해야 했고, 각市·道 책임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6월 28일 南勞黨의朴承永



○ 1950년 6월 28일 서울에서 人民裁判을 벌인

의 진의에 따라 北韓의 司法相인 李承鎭을 소위 서울시 人民委員會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곧 平權放送을 통해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北韓集團은 서울시 人民委員會 위원장 임명에 이어 7월 14일에는 北韓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南韓정령지역 人民委員會選舉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北韓集團은 南韓정령지역에서 北韓시 人民委員會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들의共化의 발판을 짊기 시작했던 것이다.

金孝錫·趙素昂을 앞장세워

—南侵지역 住民을 선무공작—

6월 30일 北韓集團은 政治的으로 국회 중요하다고 인정한 政治犯자수제도를 布告한 것이다.

그 내용은 한국정부의 軍, 警察, 政黨, 사회 단체들이 속해서 한국정부에 忠誠을 나였던 사람도 首領만 하면 과거의 跟過를 용서 한다는 것이다.

이 自首를 촉구하는 工作은 此으로부터 과전진 소위 政治保衛局, 내무성,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및 문화선진工作隊과 같은 軍·軍·警聯·秘密警察 등에 의해 고조하게 조작되었다.

사실 그들의 勉強선진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그 自首에 응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北韓集團의 친학행위는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北韓 정치보위부는 이미 작성한 블리스터에 의해 政界·官界·文化·哲論·實業·青年단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자각종의 중심 人物들을 색출하여 그들중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자와 그렇지 않은자를 구분하여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즉시 가족으로 끌어들여 大眾들이 보는 앞에서 소위 人災裁罰에 회부하여 총살 혹은 打殺하는 바위의 친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自首 또는 색출, 죄로인 사람들을 중이 유가치가 있는 자들은 그들의 宣傳道具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던 대표적 인 人物로서는 당시 内務長官 金孝錫과 國會議員 趙素昂 등 48명이었다.

특히 金孝錫에게는 강제적으로 친함을 하도록 意見을 표명계하고 라디오放送을 시켜 自首運動에 앞장서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教育機關의 세입을 美國과 韓國에 전가하는 放送을 시켰던 것이다.

즉 「이인 教學은 美國과 韓國이 먼저 北韓을 간병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放送을 계속하지였다.

또한 趙素昂에게는 7월 25일 서울에서 北韓을 주문하는 會議를 열도록 하여 國會議員들에게 南韓으로 날출, 험역하도록 하는 謂言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故道을 통해 「國土의 파괴와 人民의 회생을 양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以北에 서 대간을 가지고 싸우지 말것」을 호소도록 했다.
정말 주의 탈을 쓴 이리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후 소위 南朝鮮 勞動黨 國會드락시事件으로 제조된 金善水는 7월 22일 韓國 정부와 함께 남한 誓員들에게 「李承晚 일당의 기만과 강제에 동조하는 것을 潛覽하고 이 기회에 韓統一사업 대열에 參加하라」고 호소하면서 北朝水의 韓國文配를 正當화하고 韓國 정부에 반대하는 聲明을 발표하기도 했다.

눈 뜨고 웃볼 人民裁判場

— 金八峰·全在洪씨[金]내 살아남고 —

白首와 색술, 세로는 세속되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人民裁判」이라는 人民處置 능률이었다.

이 「人民裁判」도 일반인에게 혼보기가 되는 서명인사에 한하고 無名인사는 「反動分子」라는 이름을 써워 비밀리에, 혹은 廉潔의 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던 것이다.

7월 2일 상호 11시 20분경 서울의 국립극장 현판앞에서는 그 不法의 人民裁判가 열리고 있었다.

일심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두명의 共產分子가 「人民裁判」이라고 써어진 현수막을 들고 서들고 있고 그 주위에는 자기 꼽직한 풍충이 둘은 20여명의 罷免행동대원들이 일그러진 얼굴을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주제의 테이블을 이어놓은 재판장이 면 남무한 양복자립을 한 세명의 정님이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이 人民裁判의 檢事이고 裁判官이자 旗頭兵인 것이다.

그들 앞에 꽂직한 오랏줄에 주손을 치고 쓰여 있는 被召 주사람이 서 있었다.

이는 남달리 크고 주처럼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作家 金八峰씨와 함께 일하던 全在洪씨였다. 그때 金씨는 모술관사 杜長이고 金씨는 工場직업사였다.

이 人民裁判는 金八峰씨와 全씨에게 다음과 같은 判決이 내려졌다.

「被告 金八峰은 日帝時代에 共產主義者로 활동하거나 8·15 독립방을 전후하여 공산주의를 배반하고 변질한 자이다.

또 그후 被告는 南韓警察의 일정이 되어 우수한 용산주의 운동가들을 찾아서 항구소에 투옥시킨 악질분자인 聲員이나 出版社를 경영하는 부르고아로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취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의 발전을 양지해온 반동적 철사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人民共和國 법률에 의해서 被告 金八峰과 全在洪에게 「死罪을 裁判한다」는 내용이었다. 참 어이없는 裁判이었다.

이러한 判事의 判決文 낭독이 끝나자 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행동대원들이 달려들어서 金八峰씨와 全在洪씨에게 난동을 가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들고 있던 금지한 풍충이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술·수비 입에서 비명이 풀려나왔다. 하지만 아만적인 풍충이군은 사정없이 허공에서 날뛰었다.

이를 악물고 배질을 이겨내고 있던 金·全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망바닥에 쓰러지고 그의 입에선 피가 흘렀다.

그러자 행동대원들의 段人풍충이는 쓰러져 있는 나약한 인간의 풍충이 위를 계속 푸자비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共產分子 간의 만행을 지켜본 行動大員들은 충분히 치밀어 올랐다.

「서린 아주만도 못한 놈들 같으니 사람을 마시게 해듯이 버려서 죽이다니 저것이 共產黨員들의 정이란 맞인가?」

市民들의 마음속에 북한 罷免집단에 대한 증오심으로 끌어 올랐다.

아스팔트 바닥엔 鮮血이 냉각하고 쓰러진채 무수한 배질을 당한 한 人間의 풍충이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죽었으니 끌어다 버려라!」
行動隊員이 외쳤다.

행동대원들은 빛줄로 쓰러진 주사람의 앞쪽을 풍충 뿐만 아니라 개새끼처럼 땅에 끌어놓고 나간다.

이와같은 共產分子들의 아만적인 행동을 본 行動大員들은 충격을 받지 못했다.

행동대원은 일진 풍충과 있는 시세에 절제했던 속이 절기쳤기 빛세 나았고 풍충이의 실정이 벌어져 나갔다.

어디서 그들은 비루성이가 된 주사람의 肉體를 四大門에 하여 일으로 내 네저버렸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이 있었다.

人命은 在天이란 말이 있듯이 주사람은 그

□ 護國漫評 □

金判國



☆ 우리 힘으로...

로부터 나흘 뒤인 7월 6일 오후에 기석식으로 회의를 회복했다.

두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회식한 것이다.

青少年을 義勇軍에 強募

— 手段·方法가리지 않았던 그들

武力南侵만 일으키면 소기의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북한 共產主義者들은 예상이 빗나가길에 따라 그들은 절망시켜기 青少年들에게 소위 義勇軍에 참가도록 호소했다.

이미한 호소는 7월 중순경부터 시작되었고 7월초 까지는 자발적인 志願의 형식을 빼하여 지원자격을 共產黨員, 民主青年同盟員과 같은 세금제인 영성분자에 한정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欄況이 점차 불리하게 되고 补充兵力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7월 6일 北朝勞動黨의 결성이 시달리 후부터는 절차 강제적인 방법을 대하여 城域, 鐵場, 校園 등에서 「干糧征集大會」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義勇軍을

강제로 集集하고 기초훈련도 없이 즉시 戰線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군중궐기대회」에서는 선동자가 義勇軍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연설을 하면 군중속에 跳入되어 있던 共產黨 기관원이 이에 찬성의 소리를 지르고 일반 사람들을 이 호응에 절대로 복종하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른바 共產黨 선동방식인 것이다.

특히 18세 이상의 학생들을 소위 民主青年同盟에 가입시키후 義勇軍에 흡수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義勇軍 動員실적이 부진하자 8月중순부터는 民主青年同盟員, 女性同盟員들을 가두로 진출시켜 남녀동행인증 봉사를 하고 이를 통해 강제로 義勇軍에 입隊시켰다.

그밖에도 家庭수색, 警備점검 등을 찾은 수단·방법을 통하여 義勇軍 모집을 천천하게 실시했다.

住民登記, 食糧통제, 通行제한증은 白首者와 義勇軍에 전임시킬자의 죄를 주권하는 가장 폐리한 제도였다.

김일성은 7월 8일 人民黨에 전임친자의 수를 50여萬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北韓 출신

자만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8월 15일 發表한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北韓 출신사가 80여만인데 이의 경영은 韓朝 지역에서는 40여萬의 労動者, 民眾이 教育軍에 상가했다는 것이다.

남한 경영지역에서 教育軍의 強制勞動을 시작하면서부터 한달 만만에 이미 40여만명이 戰線에 보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후 가장 募集가 심했던 후반의 1개월간의 세출인천을 합하면 경영지역 만으로도 1백여 만명의 教育軍이 장재징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北側는 이와같이 그들의 韓半島共產化라는 目標 달성을 위해 무고한 青少年들을 강제로 징모하여 전쟁터에서 労働의 희생물이 되게했다.

住民들은 強制勞動場에

—營配給으로 市民목풀라 —

북과의 戰鬪 경영 후 시민들을 회복하기 위한 제반 경재은 한낱 선진구호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人的 物의 권리 혹은 재산하는 강제로 치었다.

北側軍이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을 때 관사 위원회는 通貨政策으로서 경영지구의 貨用에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남한 사람들의 財產을 볼수하기 위해 소위 북한 중앙은행원과 한국은행원의 교환률을 1대 8로 결정하고 북한의 통화는 경영지역내에서 부제한으로 통용되도록 했지만 우리돈은 북한에서 통용하는 것을 금했으며, 南北韓간의 商品의 교류도 금지시켰다.

이미한 通貨政策과 함께 食糧政策에 있어서는 완전히 시장의 자유교환을 금지하고 配給制度를 실시하여 受給者들을 통제시켰으며 군기판 및 教育軍·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한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모두 모욕에 그쳤다.

그후 9월 1일에 이르러 개인별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하였을 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3개월의 경영기간을 통해 시장배급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서울市民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정도로 이참하였다.

또한 이러한 食糧政策와 관련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서울의 人口 1백50만을 50만으로 강소시킬 계획임에 주민을 강제로 북한에 이주시기로 했다.

서울에는 궁궐 뒤 서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다는 天國과 같은 북한에 이주한 하면 직

임, 주택, 식량, 그리고 모든 生活의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宣傳에 매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몇도 모르고 北韓에 이주했었다.

그러나 北韓에 이주해 간 사람들은 북한의 생활이 신전하는 너무나도 말라 실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글중 많은 사람들이 原住居地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자기가 살던 예집에 돌아와 보니 家財道具는 이미 빼앗겨 없어지고 거기에는 兵庫主副 기관들이 주인방세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基督敎의 教會, 佛敎의 사찰등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선서를 시킴으로써 그 존속을 허용하였고 교회와 사찰에 스玷리과 진일성의 사진을 꼭 걸어 놓도록 했다.

그들은 형식상 教會와 佛敎의 존속을 허용했지만 그 僧侶들은 공산주의와 상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특히, 基督敎人들은 美國의 스파이로 돌아 강제히 탄압했던 것이다.

그들의 占領지역에 가려진 國軍과 教育軍의 적설한 목적으로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어 労働員의 필요성이 절실히 해쳐 그들은 강제노역증원의 방법을 백하게 했던 것이다.

당시 露·夜를 가리지 않고 직접 労動에 労員의 사항의 총수는 1백만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다가 노동의 성질상 그들은 전제으로 作業에 종침되었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혹함이 한 築牆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北側軍은 서울점령후 초기에는 회유, 유포적 대도를 보였으나 점차 강압적인 악랄한 대도를 취하여 식량배급, 인구조사, 강제선출 자수원 고종에 의해 리스토가 환비된 후부터 노동적인 압박, 반동수청에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그들의 통일부 立法機關을 소집할 예정이었던 8월 15일이 일박일에 따라 숙식은 더욱 실패되고 그들의 政治와 이미용로기에 반대한다고 기록된 소위 「人民의 敵」은 모조리 죽임 세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월도 예정되었던 「統一完成」이 좌절되고 教育이 고착상태에 빠져 중리에 대한 선방과 豪傑지자 表揚에 대한 단양은 더욱 가혹했다.

本省 1백일간 8일 4천여명의 美國人十를 용 教育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 北도로 끌려갔다.

이 천인공모한 것은 마수들의 만장을 어찌 알을 수 있으랴! ★